

6월 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은행주 반등 주도..다우 0.86%↑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하락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실업수당 신청이 3주 연속 감소해 투자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은행업종이 반등세를 보이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음. 유가급등에 따른 에너지주 강세도 지수를 지지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74.96포인트(0.86%) 상승한 8,750.2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10포인트(1.32%) 오른 1,850.02를, 대형주 중심의 S&P 지수는 10.70포인트(1.15%) 상승한 942.46을 각각 기록했다.
美 주간 실업수당 3주째 감소..예상치 거의 부합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30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보다 4,000건 감소한 62만 1,000건을 기록했다. 시장의 전망치에도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가 각각 조사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62만건이었음. 1주 이상 지속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23일 마감기준)도 전주보다 1만 5,000건이 감소한 674만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사상 최고치 행진도 17주만에 멈춰섰음.
美 1분기 생산성, 큰 폭 증가	미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1분기 비농업부문 생산성이 연율로 1.6% 증가했음. 이는 0.6% 감소세를 보였던 작년 4분기에 비해 증가세 반전을 의미하며, 시장의 예상치도 크게 웃돌았음.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각각 1.2% 증가였음.
국제유가 4.1%↑..실업수당+골드만삭스 재료	국제유가가 사흘만에 4%대의 급등세를 보이며 배럴당 68달러선으로 마감했음. 경기지표 개선과 골드만삭스의 유가상승 전망이 영향을 미쳤음.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69달러(4.1%) 급등한 68.81달러로 거래를 마쳤음. 국제유가는 장중 한 때 69.60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며 이는 작년 11월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올들어 54%나 급등한 수치임.
ECB, 금리 동결..경제 전망은 하향	ECB는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금융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로 유지하기로 했음. 이는 ECB가 출범한 이후 10년래 가장 낮은 수준. 이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와 경기후퇴(recession)가 끝나간다는 조짐이 속속 포착되면서 ECB가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풀이됨.

제목	주요 내용
ECB 총재 발언에 유로화 강세..엔화는 약세	4일(현지시간) 미국 외환시장에선 오후 시분 현재 유로-달러화 환율이 0.0847% 상승(유로화가치 상승)한 1.4174달러를 기록.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가 1%인 ECB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유로지역의 경제흐름이 `훨씬 덜(much less)` 부정적이라고 밝힌 점이 유로화의 상대적 강세를 부추겼음. 달러-엔 환율은 0.8960% 상승(엔화가치 하락)한 96.8450엔을 기록했다. 엔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음. 요사노 가오루 재무상이 "지난주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을 102억달러 순매수했다"고 언급한 점이 영향을 미쳤음.
1분기 GDP 전분기비 플러스 전환.	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 작년 4분기 -5.1%로 역성장을 보였으나 한 분기만에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전환한 것. 하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2% 감소. 이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속보치보다는 0.1%p보다 상향 수정된 수치이긴 하나, 작년 4분기의 -3.4%보다 악화된 것임.
줄기차게 내리던 CD금리 8개월만에 상승	4일 금융협회에 따르면 91일물 CD금리는 전일보다 1bp 상승한 2.42%에 고시. CD금리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10월 24일 6.16%에서 6.18%로 상승한 이후 거의 8개월만에 처음. CD금리는 지난해 10월말 6.18%까지 상승했다가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와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면서 가파르게 하락했음.
남광토건, 양골라 총9억달러 석유플랜트 수주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광토건은 양골라에 설립한 합작법인 NIEC를 통해 양골라 국영석유회사가 발주한 9억달러 규모의 석유 저장설비프로젝트를 건설. NIEC는 이중 5억 달러의 공사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NIEC는 남광토건의 양골라 현지 건설사로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